

로마서 4 : 6 -8 일한 것이 없이(without works)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한 것이 없이(without works)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에서 ‘일한 것이 없이=without works=*choris ergon* ($\chi\omega\rho\rho\acute{\iota}\varsigma \ \acute{\epsilon}\rho\gamma\omicron\nu\nu$)’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4 :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6 Even as David also describeth the blessedness of the man, unto whom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chi\omega\rho\rho\acute{\iota}\varsigma$) works(= $\acute{\epsilon}\rho\gamma\omicron\nu\nu$)**

로마서 4 :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7 Saying, Blessed are they whose iniquities are forgiven, and whose sins are covered.

로마서 4 :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 Blessed is the man to whom the Lord will not impute sin.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4:7-8 에서 인용된 시편은, 다윗왕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용서받은 경험을 기록한것입니다.

로마서 4 :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로마서 4 :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왕은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무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은 제사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위한 어떤 행위에 의해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에 의해 죄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보지않고 그냥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일방적으로** 전가해 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 을 사도 바울은 6 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일방적으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4 :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6 Even as David also describeth the blessedness of the man, unto whom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works,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이 오히려 범죄를 했는데”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 라는 말의 의미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는 영어로는 ‘without works’ 입니다. Without 은 헬라어로는 choris(χωρίς), separate 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choris (χωρίς)를 로마서 3:21 부터 계속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Romans 3:21 (KJV)

²¹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without** the law is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로마서 3 :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Romans 3:28 (KJV)

²⁸ Therefore we conclude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without** the deeds of the law.

로마서 4 :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Romans 4:6 (KJV)

⁶Even as David also describeth the blessedness of the man, unto whom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works,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겠다는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언약과는 따로 (separate)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 without** the law 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Marvin R. Vicent 는 4 권으로 된 그의 word studies 에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¹. '**율법 외에 = without** the law'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인 "Do this, and then live,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 선지자들로 부터, 꾸준히 모형으로 으로 예시되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나 믿음이나 하는 각도에서 볼 때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choris(**χωρίς**)를 반복 사용하면서 그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터무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공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로 지내시면서 그들에 대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 :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¹. Vincent's word studies in NT Rom 3:21 comm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 :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복음 18 :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 : 12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¹² I fast twice in the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possess.

누가복음 18 :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¹³ And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would not lift up so much as *his* eyes unto heaven, but smote upon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누가복음 18 :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상기의 구절에서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을 말하고, 세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리는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선고를 받아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거부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범죄한 다윗이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구절에서 세리가 의롭게 된 믿음을 지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 :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¹³ And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would not lift up so much as *his* eyes unto heaven, but smote upon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KJV)

우리가 읽은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시해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에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입니다.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에서 be merciful 라는 말입니다.

이 be merciful 은 원어로는 hilaskomai(ἱλάσκομαι)²인데, 제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사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고 신약에서는 꼭 두번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2 : 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7] Wherefore in all things it behoved him to be made like unto his brethren, that he might be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in things pertaining to God, to make reconciliation for the sins of the people.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 to make reconciliation for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hilaskomai(ἱλάσκομαι)는 로마서 3:25 의 화목제물을 나타내는 hilasterion³과 같은 어원을 말입니다.

로마서 3 :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Propitiation = hilasterion) 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hilasterion 은 구약의 시은소를 말하며, 화목제물을 말하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미 로마서 3:25 의 강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서 공부했습니다. 복습 삼아 다시 공부를 하면, 속죄소(hilasterion)라는 것은 지성소 안의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인데, 일년에 일차 대 속죄일에 대 제사장이 속죄제물(hilasterion) 피를 가지고 들어 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면, 대제사장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이 일년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 지는 것입니다. 이 속죄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이 이루어져(hilaskomai(ἱλάσκομαι))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². 동사로는 신약에서 누가 복음과 히브리서 2:17 에서 두번 쓰였다.

³. 명사로는 신약에서 롬 3:25 과 히 9:22 에서 두번 쓰였다.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레위기 16 : 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hilasterion)**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hilasterion**)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16 : 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hilasterion**)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hilasterion**) 위와 속죄소(**hilasterion**) 앞에 뿌릴지니

레위기 16 : 16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hilaskomai(ἱλάσκομαι))**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속죄동물, 속죄소, 나아가서 로마서 3:25 에서 화목제물은 hilasterion 이라는 한 단어로 쓰였는데, 동일한 대상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지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세리가 hilasterion 를 사용하여 사죄를 한 것은, 이 피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without works=*charis ergon* (χωρίς ἔργον)'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도 일반 백성도, 바리새인도 세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제단에 뿌려진 이 피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는 이피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처지도 모르고 자기의 행위의 義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고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 온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온 국민이 통곡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며 목숨을 내 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버린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천명이 학살을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기에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변절자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죽여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롭다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때문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의를 전가시켜 일방적으로 의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Without works, choris ergon !

갈라디아 2:16 을 읽고 우리 공부를 마치십시오.

갈라디아서 2 :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로마서 강해 4 장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로마서 강해 3 장 은혜와 샅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로마서 강해 3 장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로마서 강해 은혜와 샅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